

# 환상에의 초대

Invitation to the Illusion

ESSAY

朴英健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by Park, Young-Geon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서 몸이 땀뻘 끓고 연거푸 재채기가 터져나오더니 온몸이 쭈서온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리를 펴고 누워있자니, 몸이 무거워 천길만길 가라앉는 듯 하다카도 어느때인가는 간곳없이 붕 떠오르는 듯 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때가 때인지라 마음놓고 업살을 부릴 수 있는 행편이 되질 않아서 어떻게든 몸을 추스려보려 애를 써보지만 마음같이 움직여 주질 않는다. 정신을 잃듯 잠속에 끌려들어 가기도 하고 경계에 들린듯 화들짝놀라 깨어나기도 한다. 그 와중에 꿈인듯 생시인듯 무슨 환상 같은 것이 보인다. 천사같이 하얀옷을 입은 여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다가 문득 깨어보면 이제 죽는구나하는 절망감이 들기도 한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데 하는 생각에 만사가 덧없는 듯하여 눈가에 물기마저 비친다. 그 아우성 그 몸부림 도대체 그 끝은 한가지인데 다들 그 난리인가? 가을날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절어가는 머리가 하얗게 쉰 노인의 모습이 한쪽의 그림과 같다. 한없이 편안한 차림으로 한걸음씩 떼어 놓은 발자국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때린다. 화면은 붉은색 모노크롬으로 바뀐 채 정지된 영상들이 마구 겹치며 빠르게 돌아가다가 화이트-아웃, 한참동안이나 계속되는 암흑의 세계, 단절, 다시 화이트-인 하면서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봄의 정경이다. 종달새가 높이 날고 얼음녹은 시냇물 소리가 한없이 정겨운 풍경이 배경이 된다. 무대 한쪽에서 하얀 발레복을 입은 무용수가 등장하여 느린 동작으로 원을 그리며 돌기도 하고 가끔은 발작하듯 솟구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허공을 향하여 기지개를 쳐듯 두팔을 쭉 뻗어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모으기도 한다. 어디서인가 봄의 향내가 스며나오더니 사방은 온통 녹색의 기운이 감도는듯 페퍼민트의 감미로움이 배어온다. 나른해지는 기분과 매사가 귀찮아지는 권태감이 온몸의 기운을 빼어버린 듯 엉금엉금 기어 자리끼를 찾아 여기저기 더듬거린다. 창밖에는 태양이 빛났다. TV 미니시리즈 프로를 본다. 석찬은 색안경 낀 눈을 껌뻍거리며 아직 살아있는 청각과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 싸움을 벌인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일방적인 게임이지만 집념을 불태우며 끈질기게 달려들어본다. 결국은 져서 이기고 만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이겨보았자 얻는 것이 없다. 처음부터 시작한 이유를 모르겠다.

“요즈음은 선거철이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곧 선거를 할테고 우리협회도 한다. 내가 제일ियो, 내가 적임자입니다. 나를 뽑아 주시면 끝내 줍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눈길만 마주쳐도 심끗, 갑자기 너무 친절하다. 누가 되더라도 말대로만 된다면 나쁠 것은 없겠다. 누구처럼 자기 맘에 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당장에 이민신청을 해야될가? 글썄, 그럴 수도 있겠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뿜을 빼앗아 남이 가지면 남이 그만큼 잘 살게 될테니 좋다.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기라도하나? 요즈음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 봤어?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

유치하다. 나레이션기법을 도입한 연출수법은 신선한데 그만큼 내용이 따르지 못했단다. 외국작품을 번안한다는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역시 조상의 얼이 배어내질 못했다.

일찍이 누군가가 설파한 바로는, 파리는 -매춘부와 같다. 멀리서 보면 남자의 영혼을 녹여 버릴 것 같고 그녀를 두팔로 끌어안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5분 후에는 공허감을 맛보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 속에서 그녀는 싸구려 밍크코트로 몸을 감싼 채 빨간 비닐 우산 밑에서 저녁내내 자리에 서 있었다. 생글생글 웃기까지 했다. 곁은 반지르하지만 페인트 냄새도 가지지 않은 호텔방에 세 남자가 함께 잔 일을 생각해 보라. 남자가 이제중년에 접어들면서 배가 나오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잠자리에서 코를 약간 골아 대는 것이 무슨 대수일까? 그러나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단체관광객을 인솔한 초행길의「가이드」가 불쌍하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천둥치는 소리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아침마다 별정계 충혈된 눈을 드러다 보면 거울을 깨드리고 싶다. 관광학을 전공하고 외국어를 열심히 파낼 때는 이게 아니었다. 그래도 희망을 갖자! 갑자기 미국사람 소리가 들린다. 『쏘리』, 『쏘리』...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유학가서 놀러 왔던 것이 벌써 한 이십년은 되었다. 미안하다는 표현이 참 유연하다. 그는 그렇게 살아간다.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다. 누군데? 친구딸... 아빠 친구딸이 벌써 시집가? 열두시인지 한시인지 아리송하다. 수첩에 적어 두었는데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 그래도 늦는 것보다는 이른게 낫지. 12시 5분, 식이 벌써 시작되었다. 대부분 얼굴을 모르는 이 뿐인데 알만한 사람이 한 둘은 있다, 어색하게 목례를 보낸다. 나보다 늦게 오는 양반도 있다. 어덯니까? 예! 저기, 저겁니다. 10분후에는 식이 끝난다. 사람들이 우루르 몰려 나온다. 어떻게 할까. 그 틈에서 기다리나? 아직 인사도 못 했는데 가족사진 찍는데. 애매하다. 식사하러 갑시다. 거기서 인사하지 뭐, 그럴까요 아니, 그냥 가겠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봉투보면 알겠지. 좀 적은게 아니었나? 할 수 없지 뭐. 요즈음은 선거철이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곧 선거를 할테고 우리협회도 한다. 내가 제일ियो, 내가 적임자입니다. 나를 뽑아 주시면 끝내 줍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눈길만 마주쳐도 심끗, 갑자기 너무

친절하다. 누가 되더라도 말대로만 된다면 나쁠 것은 없겠다. 누구처럼 자기 맘에 들지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당장에 이민신청을 해야될가? 글썄, 그럴 수도 있겠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뿜을 빼앗아 남이 가지면 남이 그만큼 잘 살게 될테니 좋다.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기라도하나? 요즈음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 봤어?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 이민 얘기를 하자면 한이 맺히는 사람이 있다. 모든 희망을 걸고 이민만이 살 길인 사람이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걸치고 자동차정비를 배워야 했고, 연필 팡팡이를 집어 던지고 용접마스크 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수구지심, 이제 나이들고 웬만큼 자리도 잡았으니 고향이 그림다. 이제는 가서 큰소리치고 남은 여생을 즐겨야지. 금의환향이 별것이나. 떠나온지 오래되어 친구들의 이름이나 얼굴은 어슴프레하지만 두고온 고향의 거리들을 기억에서 언제나 또렷하다. 사람사는 모양이야 어디 쉽게 변하겠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양 그 형편대로 살고 있겠지.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갖고 가야지. 알수없지 않은가, 앞날을. 수 틀리면 원대복귀다. 오늘도 김포공항은 붐빈다. 가는 사람은 오늘도 간다.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가게되면 간다. 도착 하시는 대로 우리 초청 해줘요, 아시겠쥬. 신경쓰세요. 이 나라 이 살림이 아직도 그리 불안한가? 해두면 좋지 않아요? 늙어서 은퇴하면 거기 가서 연금 받고 살아요. 한달에 500불이나 준대요, 거기서는 일불이 아쉽대요 그만큼 돈 가치가 있다는 얘기에요. 연금은 아무에게나 주나? 연금 따 먹으러 이민 간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하기가 이 곳에도 연금위원회라는게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있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고 그만큼 정서가 안정된다면 무얼 탓하겠나. 너, 공치니? 아니, 아직. 마, 빨리 시작해. 머리 올려줄께. 뭐하니? 요즘 세상에 이보다 더한 낙이 있는줄 아니?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지. 즐기는거야 오늘도 학생놈들은 명하다. 수학여행 갔다 와서 중간고사 치르고 체육대회 하고나서 지금은 대전준비를 한다. 정작 주어진 과제는 대책이 없다. 매사가 그렇다. 애나 어른이나 환상을 쫓아 하루하루를 넘긴다. 현실이 너무 각박한가? 휴우! 일하며 생각하했는데 생각이 지나쳤나?